

추석 전 벌초, 예초기 사용에 주의하세요!

- 예초기 사고의 38.3%가 베이거나 찢림, 신체 부위별 보호구 착용 철저
- 예초 작업 전 주변정리 및 안전한 원형날·끈날 사용 권장

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 등으로 예초기를 사용할 때는 개인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.

농촌진흥청의 ‘2025년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조사’에 따르면, 농기계 관련 손상 사고 중 예초기 비율은 14.3%로 경운기(25.0%)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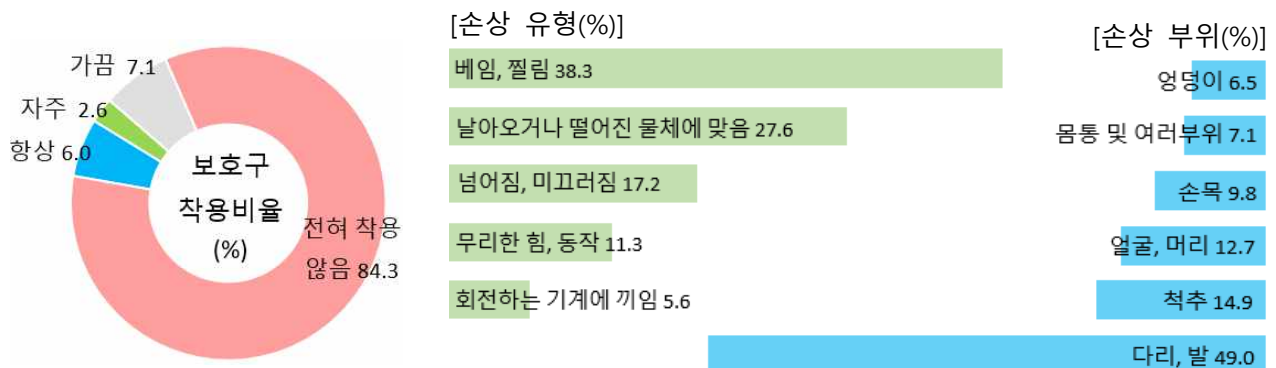
<농기계 종류별 농업인 손상사고 발생 비율>

구 분	경운기	예초기	트랙터	관리기	그 외 농기계 (이앙기, 콤바인, 기계톱 등)
손상사고 발생 비율(%)	25.0	14.3	13.6	9.0	38.1

[출처: 2025년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조사 결과, 농촌진흥청]

특히, 응답자의 84.3%가 예초기 작업을 할 때 안전모나 안면보호구 등의 적절한 보호구를 ‘전혀 착용하지 않는다’라고 답했으며, ‘항상 착용한다’는 6.0%에 불과해 사고 발생 시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<예초기 사용 시 보호구 착용 및 예초기 관련 손상 유형과 손상 부위>



[출처: 2025년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조사 결과, 농촌진흥청]

손상 유형별로는 베임·찔림이 38.3%로 가장 많았고,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음(27.6%), 넘어짐·미끄러짐(17.2%), 무리한 힘·동작(11.3%), 회전하는 기계 끼임(5.6%) 순이었다.

주로 다치는 부위로는 다리·발이 49.0%로 절반을 차지했으며, 척추(14.9%), 얼굴·머리(12.7%), 손목(9.8%)이 뒤를 이었다.

이처럼 예초기 사고는 다리나 얼굴 등 신체 손상으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,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전후로 다음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.

먼저 예초 작업 전에는 작업 장소의 돌, 나뭇가지, 쓰레기 등을 미리 정리해 예초기 날에 부딪혀 튕 수 있는 이물질을 최소화하고, 작업 중에는 반경 15m 이내로 타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.

또한, 예초기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면보호구나 보안경, 무릎보호대, 안전화, 안전모, 장갑 등 신체보호구를 착용하고 긴 옷을 입어야 한다.

예초기를 사용할 때는 보호 덮개를 반드시 장착하고 칼날의 고정 상태 등을 꼼꼼히 살핀다. 안전을 위해 원형날이나 끈날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, 날이 휘었거나 마모된 날은 교체해야 한다.

특히 돌 등 이물질과 충돌했을 때 튀어 오를 위험이 높은 이도날*(날이 2개인 칼날)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.

* 예초기 날 사용 비율(%): 이도날 86.1, 끈날 8.2, 원형날 5.4, 기타 0.3

이도날 (2도날, 위험)	안전날 (원형톱날, 물체에 닿으면 팔의 관절처럼 자동으로 접히는 날, 끈날 등)		
			
돌 · 이물질과 충돌시 비산하여 작업자에 위험	돌 등이 이도날에 비해 튀지 않아 안전	돌 등과 충격시 날이 접히는 구조로 안전	쇠날에 비해 안전

[출처: 농촌진흥청]

만약 칼날에 이물질이 끼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이나 동력을 차단한 뒤 장갑을 낀 손으로 제거해야 베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.

하종목 예방정책국장은 “추석을 앞두고 벌초 등으로 예초기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, 신체 부위별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하고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작업해 주시길 바란다”라고 당부했다.

담당 부서	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	책임자	과 장	이치선 (044-205-4510)
		담당자	사무관	송정호 (044-205-4505)
통계 부서	농촌진흥청 농촌환경안전과	책임자	과 장	김상범 (063-238-2331)
		담당자	연구관	채혜선 (063-238-2366)





행정안전부

추석 전 벌초, 예초기 사용에 주의하세요!

예초기 사고 예방 요령



**예초기 사용 전 보호장비 착용 철저 및
안전수칙 준수로 안전하게 벌초하세요!**

예초기 사고예방 기본수칙



예초기 사고는 사고 발생이 많은 농기계 사고 유형 중 하나입니다.

주요 사고는 돌·칼날 등이 튀어 눈·얼굴, 다리 등을 다치는 사고로 안전칼날을 사용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.

★ 보안경, 안면보호구
안전모, 청력보호구 착용

☑ 작업 전 위험물 제거

이물질 : 돌, 유리병, 철사
캔, 굵은 나뭇가지 등

☑ 진동방지
장갑 착용

☑ 칼날

이물질 제거 시
먼저 동력 차단

☑ 안전커버 장착

★ 안전칼날 사용

이물질이 튀는 것을 최소화하도록
원형 톱날, 끈 날 등 사용

★ 정강이 보호대

무릎 보호대
안전화 착용



☑ 타인 접근 금지

돌이나 파편이 튀어 다칠 수 있으므로
작업반경 15m 이내 접근금지

예초기 사고사례



예초기 작업 중
이물질(돌, 부러진 칼날 등)이
튀어 정강이 상해



예초기 작업 중
주변 사람에게
돌이 튀어 실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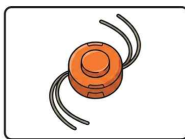
예초 작업 중 논두렁에서
미끄러지면서 회전 중이던
예초기에 신체(발) 베임



예초기날에 이물질이 걸려
멈춰진 상태에서 이물질을
제거하려는 중에 예초기날이
갑자기 회전하여 손가락 절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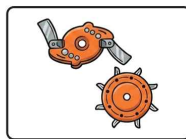
용도에 맞는 안전한 날 사용

나일론날 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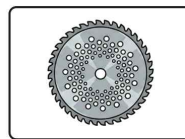
작은 돌멩이와
잘린 풀이 멀리까지
비산되지만
쇠날에 비해
안전성이 높음

안전날 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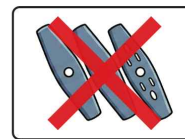
작은 원반에
2~3개 이상의 날들이
풀을 베며 충격 시
날이 접히는 구조로
안전성이 고려됨

원형날 ☑



무게감은 다소 있으나
돌 등이 튀지 않아
안전도가 높음

2도날(일자날) ☑



자갈이나 이물질에
충돌하면 비산하여
작업자에 상해를
입힐 수 있음
*작업자 보호를 위해 사용 지양



농촌진흥청

농촌지원국
농업인안전과

Tel. 063-238-1039
5487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

농업인 안전정보는
농업인안전 365
<https://farmer.rda.go.kr>

